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경험 연구

송 미 강[†]

지인정신분석상담연구소
/ 소장

송 은 희

연세대학교 상담코칭 전공
/ 박사수료

성 조 은

연세대학교 상담코칭 전공
/ 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거부되고 따돌림된 부모들의 경험과 대처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녀와의 접촉이 끊기고 따돌림된 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부모따돌림 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여 연구 자료에 포함했다.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방법론에 의해 드러난 연구 참여자들의 중심 현상은 ‘영원한 이별의 예기 불안’과 ‘자녀가 없는 삶의 무의미’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로부터 거부된 경험을 ‘부모따돌림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녀와의 관계 회복 노력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실효성 없는 면접교섭제도와 부모따돌림에 대처한 주요 전략은 ‘소송 대응’, ‘부모됨에 대한 각성’, ‘피해자 간 위로와 연대 활동’이었다. 부모따돌림은 아동 학대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따돌림된 부모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따돌림에 대한 더 많은 이해,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부모따돌림, 부모따돌림증후군, 면접교섭, 아동학대, 친밀한 파트너 폭력, 근거이론

[†] 교신저자 : 송미강, 지인정신분석상담연구소장,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종로타운

Tel: 02-733-0239, E-mail: mksong386@hanmail.net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녀들은 부모 모두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부모따돌림 (Parental Alienation)’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조종하여 다른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끔 하고 자녀 역시 그 부모를 적대시하며 모든 접촉을 거부하는 현상(Gardner, 1985)으로, 이혼가정의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갈등에서 첨예하게 드러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빼앗겨서는 안 될 소유물로 여기며 아동탈취와 연락두절, 면접교섭 방해, 상대 부모에 대한 비방과 권위훼손 등의 행동으로 자녀를 독점하고 통제한다. 부모따돌림을 겪는 자녀들은 헤어진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숨기거나 포기해야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며 충성갈등에 시달린다 중국에는 그 부모를 당당하게 거부한다(Warshark, 2010a). 심한 수준의 부모따돌림 자녀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비난하며 그 부모와의 어떠한 접촉에도 맹렬히 반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Baker, 2007; Gardner, 1987; 송미강, 2021).

우리나라 민법 제 837조 2(2007)는 이혼가정의 양육부모에게는 양육비 청구권을, 비양육 부모에게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한쪽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동의 복지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반을 둔 것이며(박득배, 2018), 면접교섭 중단은 사실상 부모 중 일방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방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김상용, 2014).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국제아동인권센터, 1989)은 아동의 면접교섭권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0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4조 제3항은 아동과 부모의 인간적 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부모와의 충분한 접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나, 악감정이 남아있는 부모 일방의 비협조로 인해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서종희, 2020).

부모따돌림은 이혼가정의 아동복지와 가족 재정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의 미비, 관련학계의 관심부족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 현상은 언론의 사회면에 실린 기사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2019년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고유정 전남편 살해사건’은 이혼 후 2년 만에 이루어진 면접교섭 당일 양육부모인 고유정이 자녀의 친부를 살해한 사건이다. 친부는 이혼소송 과정 중 단 2차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는데, 고유정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 날짜를 바꾸거나 시간을 단축했고, 이혼 후에는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친부는 면접교섭 이행 소송을 했고 법원은 친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살인사건 재판에서 고유정은 ‘전남편이 아이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사건 당일에도 이기적인 전남편이 강압적으로 펜션을 쫓아와 사건이 벌어졌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남발했다(노컷뉴스, 2020). 이 사건 이후 법원은 전국적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하여 이혼가정 자녀와 부모가 안전하게 만나는 공간을 확장하기로 약속하는 등(JTBC, 2020)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했다.

2023년 2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학대사망 사건’의 희생자인 이시우군은 친부와 계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 친모와 단절되었다. 친모는 1년간의 이혼소송 중 시우를 만날 수 없었고, 2018년 이혼성립 후 단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이사와 전학, 연락두절, 찾아오지 말라는 강요와 협박에 시달리는 5년 동안 친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냈다(JTBC, 2023). 친모는 2022년 학교로 찾아갔는데 시우는 친모를 보자 겁에 질린 채 계모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켜 후 사라졌다. 2016년 ‘평택 암매장 아동살해사건’의 원영이처럼 시우는 이혼 후 친모와 단절된 상태에서 학대로 사망했다.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학대와 죽음이었다(유선희, 2023). 또한 극단적인 학대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양육자의 학대정황이 의심되어도 면접교섭방해로 자녀를 보기 어려운 사례(YTN, 2023)도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부모따돌림’이 발생하면 면접교섭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심석용, 2023). 부모따돌림의 피해자가 된 부모들은 자녀와 생이별당한 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제외되고 잊혀진 부모의 처지가 된다. 부모따돌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이 현상이 일어나고 유지되는 가족역동,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는 시급히 파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부모따돌림은 198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양육권평가 전문가였던 Richard Gardner에 의해 ‘부모따돌림증후군(Parental Alienation Syndrome)’이란 명칭으로 공식화되었다. 이후로 정신건강, 법률, 가족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으며(Baker, 2005), 한쪽 부모와 건강하지 않은 동맹을 형성하는 아동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Harman et al., 2022). 부모따돌림이 일어나면 자녀는 따돌림의 타겟이 된 부모(Target Parent. 이하 TP)를 적대시하며

거부하고, 따돌림하는 부모(Alienating Parent. 이하 AP)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된다. 자녀는 TP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지만 AP의 지속적인 부모따돌림행동과 심리적 조종의 영향으로 TP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모든 접촉을 거부하게 된다(Darnall, 2011; Baker, 2020). 부모따돌림을 초래하는 행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미묘한 조종에서부터 노골적인 비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Baker, 2005; Warshark, 2010a),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단절시킬 목적을 가진 일련의 행동과 전략으로 발전해 간다(Baker & Darnall, 2006; Warshark, 2015a).

부모따돌림 행동의 결과, 자녀는 AP로부터 빌려온 시나리오를 통해 TP를 비난하며, 무례하고 터무니없는 거절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착취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를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로 분열(splitting)해서 다루며, 부모의 분쟁에서 반사적으로 AP의 편을 든다(Gardner, 1998; Bernet et al., 2020). AP가 TP를 비방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도구로 사용되며 직·간접적인 압력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AP에 의해 강압적으로 통제되는 부모따돌림 행동은 적대적·도구적 공격의 성격을 갖는 아동 정서학대라 할 수 있다(Harman et al., 2018). Harman 등(2019)은 부모따돌림은 DSM-V에 ‘부모의 관계 고충에 영향받은 아동(CAPRD: Child affected by parental relationship distress)(APA, 2013)이라는 진단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본다. 부모관계 불화의 부정적인 영향(예: 가족 내 높은 수준의 갈등, 괴로움 또는 경멸)에 노출된 아동들은 내면화 및 외현화 증상을 나타낸다(Brock & Kochanska, 2016; Wozencraft et al., 2019).

부모따돌림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미국의 이혼가정의 자녀 중 약 29%는 부모따돌림행동을 경험했거나 겪고 있었다(Hands & Warshak, 2011). 영국의 연구에서는 20~25%의 부모들이 이혼 후 6년 동안 부모따돌림 행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wenstein, 2013). 부모따돌림 가족통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Warshak(2015b)은 미국 전체 아동의 1%가 부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미국 전역에서 380만 명으로 추정된다. Harman 등(2019)에 의하면, 미국성인의 49.8%, 캐나다성인의 43.1%가 ‘부모따돌림’이란 용어를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개인의 학대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에 해를 입히기 위한 학대전략이라는 점이 광범위하게 개념화되어 있었다.

Harman 등(2018)은 부모따돌림은 아동학대일 뿐 아니라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하 IPV)을 수반하는 가정폭력임을 강조한다. IPV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격이 지속되는데 심리적·언어적·재정적 학대 및 사회적 고립을 포함한 복합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Gibson et al., 2015; Kelly & Johnson, 2008). 자녀와 애정어린 관계를 맺었던 TP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의 비난과 거부 대상이 되는 경험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다. AP의 부모따돌림 행동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TP가 겪는 IPV의 유형 및 심리 정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TP는 자녀 앞에서 AP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에 있었다(Baker & Darnall, 2006; López et al., 2014). AP가 사용하는 고함과 욕설은 TP를 도발하여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두려움, 공격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녀가 TP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Harman et al., 2018). 또한 AP는 자녀의 모든 일과를 관장하려는 게이트키퍼(Saini et al., 2017)을 통해 면접교섭을 통제하며, 자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다. AP는 안전에 대한 걱정을 암시하기 위해 면접교섭 동안 자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다(López et al., 2014). 이런 방해는 면접교섭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녀가 TP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

TP는 AP의 법적, 행정적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다. 많은 AP들은 TP를 ‘위험’과 연관시키기 위하여 자녀 앞에서 경찰을 부른다(López et al., 2014). 특히 AP는 TP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데, 이는 TP가 겪고 있는 부모따돌림 행동에 대해 법원이 고려할 기회를 제한하게 하므로 양육권분쟁의 무기(Lowenstein, 2013)가 된다. AP는 자녀가 TP를 거부하는 것에 타당성을 주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치료사 쇼팽’을 통해 자녀의 취약성을 주장하며 TP를 나쁜 부모로 내몬다(Campbell, 2013). Sharples 등(2023)이 미국의 항소심 사례 492개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AP는 TP보다 상대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제기할 확률이 81.62% 더 높았다. 반면, TP는 AP에 비해 입증되지 않은 학대혐의를 입을 확률이 86.05% 더 높았다. 이런 발견은 부모따돌림 행동이 강압적 통제에 의한 폭력패턴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TP들은 강압적 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데(Balmer et al., 2018), 상당한 불안과 우울, 공황발작, 외상성 스트레스 증상, 다양한 신체화 증상으로 고통받는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일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고, 스스로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더 이상 자녀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며, 부모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정체성의 일부를 잃은 것으로 느꼈다. 신체적·심리적·재정적 영향을 받고 피곤하고 지쳤으며, 상실과 슬픔, 고통, 좌절감, 무력감, 분노와 죄책감, 수치심이 컸다(Lee-Maturana et al., 2019). 자녀의 부모따돌림이 심각하다고 보고할수록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따돌림을 심하게 느끼는 부모 중 거의 절반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Harman et al., 2019). 이는 자녀와 단절된 TP들의 심리적 고통이 고위험군에 준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이들의 자살사고와 계획을 평가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따돌림의 성차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 중 누가 더 TP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성차는 거의 없었다. 부모따돌림 초기 연구에서 AP는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양육권을 더 자주 부여받기 때문이었다(Lowenstein, 2013).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이 부모따돌림을 저지르며, 다만 서로 다른 성격의 따돌림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도전하거나 반항하도록 부추기면서 양육을 무력화시키는 따돌림행동에 집중하는 반면, 어머니는 따돌림에 공모하는 제 3자의 도움을 구하고 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학적 보고서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강했다(López et al., 2014; Harman et al., 2022). AP의 학대주장에 대해서는 성차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성학대, 어머니에게는 방임에 대

한 허위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다(Johnston et al., 2005).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MMPI 프로파일 연구에 의하면, AP는 부인(denial), 분열(splitting) 등 원시적 방어메커니즘을 사용하고(Gordon et al., 2008), 연극성과 경계선 및 자기애적 특성이 강하며 실망이나 상실을 분노와 증오로 반응하는 경향이 컸다(Fidler & Bala, 2010; Verrocchio et al., 2018). 또 다른 연구(Marchetti et al., 2022)에서는 AP는 자신을 좋게 보이는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적대적인 충동을 부정하고 비난에 과도한 민감성을 보인 반면, TP들은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분노,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었다. TP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TP가 수동적·회피적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경직된 양육방식 및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묘사했다(Johnston et al., 2001; Kelly & Johnston, 2001). 또한 TP가 갈등 시 소극적이며 정서적으로 위축된 특징(Baker & Andre, 2008; Gottlieb, 2012)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TP가 자녀와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회복탄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Lee-Maturana et al., 2021; Poustie et al., 2018). TP가 보이는 수동적인 모습은 문제해결을 위해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으며, 자녀의 거부를 견디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다(Haines et al., 2020). 자기 보고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TP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지원하는데 적절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지각했으며 자녀의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욕구와 동기를 높게 나타냈다(Balmer et al., 2018; Poustie et al., 2018). 그러나 TP가 되는 것은 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의 하나

이므로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ee-Maturana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의 23%가 자살을 시도하고, 44%가 부모 따돌림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전혀 대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부모따돌림의 심리상담적 개입을 연구한 학자들은 부모따돌림은 통찰을 기대하는 전통적인 가족치료법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고 (Lorandos, 2020), 법원의 권한부여와 제재가 필수라는데 동의한다(Friedlander & Walters, 2010; Gardner, 1987; Warshak, 2010b). 또한 부모 따돌림은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가족치료가 필요한데, Warshak(2010b)의 Family Bridges Workshop 등 대부분의 가족치료 프로그램들은 부모따돌림의 본질에 대한 심리교육을 제공하여 가족 내 건강한 경계를 강화하고 피해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Haines 등(2020)과 Woodall(2017)은 피해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부모로서 근본적인 정체감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부모따돌림의 본질과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따돌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상실의 슬픔을 애도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을 높여 자녀의 행동과 자녀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에 대한 이해와 심리상담 개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TP들이 부모 따돌림으로 인한 자녀의 거부를 어떻게 경험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이 현

상의 역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부모들의 실상을 이해하며 심리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따돌림이 나타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따돌림된 부모(TP)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부모따돌림의 경험과 대처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부모 따돌림 피해부모들의 대처방식의 특성과 과정은 어떠한가?

방 법

본 연구는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의 경험과 대처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 방법론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이론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므로(Strauss & Corbin, 1998; 변시영, 2020),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부모따돌림 피해 부모들의 경험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거이론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심리·사회적 현상과 변화과정을 다양한 맥락과 관점을 고려하므로(권혜경, 이희경, 2021),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가족시스템 및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변화과정을 거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나타나고 특히 가족,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에 Strauss와 Cobin(1998)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했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심층면담자료와 참여관찰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총 15명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동안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모집되었다. 연구자들은 부모따돌림방지협회 회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1~2회에 걸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1회당 100분 정도 소요되었고 녹음 후 전사했다. 또한 연구기간 동안 부모따돌림방지협회에서 열리는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부모따돌림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 상대의 대응과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소송대응과 판결결과에 따라 면접교섭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자조모임의 참여관찰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상황 및 그에 대한 작용/상호작용을 파악하였고, 상황의 변화는 연구노트에 기록했다. 참여관찰에서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에게 재확인 후 전사본으로 전환하고 원자료에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 (1990, 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분석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되었다. 상담전공 박사와 상담전공 박사수료 및 석사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은 주 1~2회 회의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데이터를 줄코딩하였고 개념추출과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도출된 주요한 의미들을 취합하여 각 요인별로 표를 구성했으며, 교차검증

과 반복검토를 통해 추출된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 과정분석, 핵심범주코딩으로 고도화하였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5명으로 남성 8명, 여성 7명이다. 국내에 거주하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소송중인 외국인 1명(남)과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중인 교포 1명(남)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국인은 13명이다. 15명 중 8명은 소송이혼, 4명은 협의의혼을 통하여 이혼한 상태였고, 3명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연구참여자 2인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이혼소송 외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1인(여)은 법원에서 양육자로 지정됐음에도 자녀를 반환받지 못한 부모이다. 부모따돌림이 성차, 인구학적 특성, 양육자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임을 드러내고 연구대상자의 포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참여자 요건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 15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윤리적 고려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윤리교육을 이수하며 연구자 윤리를 점검, 토의하였다. 연구 시작 전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본 연구목적 외의 다른 목적 혹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비밀 보장을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모든 개인신상정보와 면담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언제든지 참여자의 의사대로 연구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심층면담 시 심리정서적인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이혼분류	이혼 외 소송대응	자녀 수	자녀(PA발현 연령)	현재 면접교섭 상황	따돌림 지속기간	아동 탈취	피고소사건 아동학대 (무혐의) 스토킹
1	남	46	소송이혼	국제아동탈취 면접교섭이행명령, 정서학대고소	1	4세	월2회 1분	5년 6개월	O	
2	남	69	소송이혼	국제아동탈취	3	16, 14, 11세	없음	20년 이상	O	
3	남	52	소송이혼	정서학대고소	1	9세	월2회 10초	5년		
4	여	41	협의이혼	면접교섭이행명령, 양육자변경청구소송	1	9세	월2회 10초	3년 6개월		
5	남	37	소송이혼	면접교섭이행명령	1	7세	없음	2년 8개월		O
6	여	39	소송이혼	양육자변경청구소송	2	7, 5세	월2회 1박	2년		
7	여	41	소송이혼	면접교섭허가청구, 양육권변경 청구	2	7, 5세	없음	2년 4개월		O
8	여	45	협의이혼	면접교섭이행명령, 손해배상청구	1	3세	없음	4년 2개월		O
9	여	40	소송이혼	없음	2	9, 7세	없음	3년		
10	남	54	소송이혼	이혼소송 중	2	19, 17세	없음	2년 6개월		
11	여	41	협의이혼	면접교섭허가청구	1	12세	없음	1년 8개월		O
12	남	52	국제탈취 소송중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아동반환집행, 정서학대고소	2	4, 2세	없음	2년 7개월	O	
13	남	42	소송이혼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고소	1	6, 3세	없음	2년 1개월		O
14	남	48	협의이혼	면접교섭이행명령	2	7세	없음	2년	O	O
15	여	44	소송이혼	유아인도반환청구, 과태료청구	1	8세	없음	1년 9개월		O

어려움이 발현될 경우 심리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여 참여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론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과 Guba(2000)가 제시한 중립성

(neutrality), 일관성(consistency), 신뢰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에 따라 3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 삼각검증 과정을 통하여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연구자가 부모따돌림 주제로 발표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참고 문헌을 함께 리뷰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하였다. 관련 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사고의 확

장을 통하여 연구자 개인이 가진 주관적 지식을 배제하고, 연구자간의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과 객관성,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축코딩을 구성한 개념 및 범주화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자신이 말한 의도대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자료 분석 내 코딩 작업과 분석 기술의 일관성을 평가하고자 질적연구 전문가로 10년간 강의하며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학박사 1인에게 연구 전반에 관한 지도와 분석내용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결 과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경험에 대한 개방코딩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78개의 개념과 49개의 하위범주, 22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과 하위범주와 범주를 중심으로 부모따돌림 경험내용들을 축코딩을 이루는 각 조건(인과, 맥락, 중심현상, 중재,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별로 정리하였고 표 1로부터 표 9와 같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해당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근거이론과 패러다임 모형 전체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주제인 부모따돌림의 인과적 조건으로는 ‘AP의 비방과 강압적 통제’, ‘믿기지 않는 자녀의 거부와 건강하지 않은 연맹’이 나타났다.

AP의 비방과 강압적 통제. 이혼갈등으로

자녀와 분리되어 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가해지는 전배우자의 강압적 통제는 향후 전개되는 부모따돌림 현상의 출발점이다. 예고 없는 아동탈취(4명)와 수신차단(15명), 정보차단(15명), 자녀를 버린 부모라는 비방과 세뇌, 고의적인 면접교섭 방해를 겪었다. AP의 아동학대 고소(4명), 성학대 혐의(1명), 스토킹 신고(2명), 경범죄 신고(1명) 등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범죄자로 내몰렸다.

“부인이 1살 딸과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결국 외국에 국제아동탈취신고를 했고 배우자는 강제출국을 명령받아 귀국했는데 공항에서 도주해 숨은 후 이혼소송을 걸더라구요. 아이를 보려면 반소할 수밖에 없었고 (면접교섭)사전처분으로 9개월 만에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피가 말랐습니다.” (연구참여자 1)

믿기지 않는 자녀의 거부와 건강하지 않은 연맹.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애정어린 관계였으며 부모역할에 충실했으나 자녀와 몇 개월, 몇 년간 만나지 못했다. 어렵게 재회한 자녀는 점차 만남을 꺼리며 불안해했고, 무례한 행동과 빌려온 시나리오로 비난하며 만남을 거부했다. 큰아이의 주도로 작은아이까지 합세하는 연쇄작용도 일어났다.

“살갑고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싫다 안보겠다’ 하고 아이가 쓰지 않던 ‘내 의사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블랙박스에 비칠만한 위치까지 와서 얼굴만 비치고 ‘난 엄마랑 가기 싫다니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선까지 연습한 듯 한 행동이

표 2. 부모따돌림의 인과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아이를 해외로 탈취하거나 미확인 장소에 숨어버림	자녀은닉	AP의 비방과 강압적 통제
전화와 문자를 수신차단하고 모든 접촉이 끊김		
아이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 알 길이 없음	자녀정보	
대학 입학여부를 학교우편물을 보고 알게 됨	차단	
아이에게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예쁘다 한 적이 없고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며 버렸다고 말함	비방과 이간질로 갈라치기	
면접교섭하러 나가는 아이에게 ‘울어라’ 고 강요하고. 애들이 면접교섭 싫다는데 의견을 존중 안한다고 공격함	교묘한 면접교섭 방해	
면접교섭 따라와서 인상 쓰며 앉아있고 마음대로 데리고 가거나 아이가 좋아할 일정을 잡아놓고 거부함		
당일 갑자기 일정을 바꾸거나 아이가 아프다며 보여주지도 않음	범죄자라는 올가미 씌우기	
자녀 앞에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며 경찰을 불러 면접교섭이 무산됨		
생일선물 보내거나 집근처에서 아이를 잠시 봤는데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당하고 경고장 받음		
아동학대신고, 접근금지명령 신청하고 불처분결정이 났는데 다시 항고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함		
면접교섭일에 찾아갔는데 경찰을 부르고 경범죄로 신고함	불안한 자녀의 만남회피	
5세 딸을 성추했다는 혐의를 씌움		
갑자기 전화로 안 간다고 말하거나, 대화 도중 눈 마주침을 피하고 빨리 가야한다고 불안해 함		
AP 눈치를 보며 영상통화를 끄고 스마트워치 신호음을 듣고 조급해 함		
엄마랑 재미있었다고 말해서 아빠한테 혼났다고 울먹임	적대감을 학습한 자녀의 적대적 응대	
선물을 주었더니 무섭다며 던지고 가짜 엄마, 사기꾼이라고 외침		
보기 싫다, 오지 말라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고, 짜놓은 동선 안에서 움직이며 애정 어린 말과 선물을 거부함		
앵무새처럼 어른들의 말을 빌려와 비난하고 맥락에 안 맞는 사소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쏘아부침		
한번 더 찾아오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함침	따돌림의 자녀 간 연쇄	
동생도 오빠를 따라 동영상을 먼저 꺼버리고, 우호적이던 둘째도 점점 거리를 두더니 수신차단하여 단절됨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안 볼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기피함		

있어요. 다가가서 만져보고 싶고 안고 싶은데 치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살 의욕이 사라져 버렸 본 연구에서는 ‘AP의 자기애성’과 ‘AP가족의
어요.” (연구참여자 5) 연합전선’이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 발생에 영향을 미

AP의 자기애성.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은 만성적인 부부갈등 및 배우자의 폭언과 폭

표 3. 부모따돌림의 맥락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딸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모습을 질투하며 분리시킴	과잉간섭 양육	AP의 자기애성
자녀 교육과 훈육을 배우자가 쥐고 있어서 끼어들 여지가 없었음		
아이 바지가 젖은 상태로 귀가시킨 것을 트집 잡으며 부모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함		
자기를 만나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함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히스테릭한 태도를 보이며 물리적인 공격도 함	양육자의 자기애적 성격요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로 밤새 화풀이를 반복함		
자신의 경력을 허위, 과대포장하고 거짓이 드러나면 격노하며 비난하였음		
아이탈취, 은닉 후 이혼소장이 왔고 아이를 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응하게 됨	강제된 이혼	
분리가 계속되어도 양육비 지원하며 바로 잡으려 기다렸지만 결국 이혼하게 됨		
조부모가 가기 싫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아이는 울며 난처해 함		
조부모가 영상통화 중 끊으라고 지시하고, 명절에 연락을 끊어 아이를 만나지 못함	AP 원가족이 따돌림세력 형성	
시댁식구들이 가세하여 엄마로 부르지 못하게 함		
조부모와 친척들이 합세하여 자식을 버린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비난함		
AP의 친언니가 동거하며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함	AP와 원가족의 공생관계	AP 가족의 연합전선
AP의 누나가 동거하며 엄마를 자청하고 자녀를 세뇌시킴		
AP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이룸		
AP의 재혼을 앞두고 따돌림이 시작되었음		
아이의 재혼가정의 요구와 친모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힘들어 함	계부모의 방해	
아이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새엄마의 개입으로 다가갈 수 없음		

력, 거짓말, 히스테릭하고 자기애적인 성격 요인으로 불행했다. AP의 과잉간섭양육과 자녀 탈취로 자녀와의 접촉이 단절된 경우에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상황도 겪게 되었다.

“처는 상당히 좀 난폭한 편이었어요. (중략) 애들 보는 데서 제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어요. 처가 욕설을 많이 했어요. 애들 앞에서 (아빠한테) 저한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제 잘못이 없더라도 제가 빌게 되고, 자기를 진정시키고. 자기 말을 따르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수위가 좀 세졌어요.” (연구참여자 13)

AP 가족의 연합전선. 연구참여자들은 AP 뿐 아니라 AP의 원가족, 확대가족인 조부모, 친척, 계부모가 합세한 공격에 대응해야 했다. AP는 자신의 원가족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따돌림세력을 강화했으며, 자녀 앞에 집단 욕설과 모욕을 가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고모나 할머니 꼭 두 명이 와요. 혼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은 애들을 케어하고 한 명은 저와 애들 들으라고 욕을 하는 거죠.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은 년아 이 도둑년 같은 년아. 애들 버리고 도망가 놓고 어디서 눈 쳐들고 돌아다니냐’ 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6)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처

해있는 문제나 상황을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부모따돌림 피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영원한 이별의 예기불안’과 ‘자녀가 없는 삶의 무의미’였다.

영원한 이별의 예기 불안. 자녀에게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쓸 수 없이 벌어지므로 아연실색하고 충격에 휩싸인다. 죄인취급 당하는 현실에 죽음으로라도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분노가 일기도 하였다. 다양한 신체증상과 절망은 이대로 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관계를 영영 회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항상 화장실을 자주 갔고 당일 아침에는 신경성 대장반응이 보여 가지고 전날 저녁부터 똥 안 먹었어요. (중략) 상대측에서 반대서면이 오면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목만 겨우 보는 수준이었고...머리가 그냥 멍해지면서 의욕도 없고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일하는데 지장이 많아 1시간에 끝날 일이 하루가 걸려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편두통도..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면증... 아이가 저를 거부하는 악몽도 많이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엄청 울었고 울다가 깬어요.” (연구참여자 1)

자녀가 없는 삶의 무의미. 자녀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의미였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이혼보다 더 힘든 것은 자녀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녀의

표 4.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중심현상

개념	하위범주	범주
부모가 나쁘다는 믿음을 심고 이간질했다는 것에 아연실색	충격과 혼란 속 망연자실	영원한 이별의 예기불안
잘 지내던 아이와의 관계가 단번에 무너지고 거부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음		
아이의 막말과 거부에 헛것을 보나 말문이 막힘		
부부였던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아동학대, 스토킹범 등으로 누명을 쓰니 참담함과 분노가 밀려옴	속수무책 절망과 분노	
부모가 먼저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나도 안 볼 것이라는 자녀에게 절망		
법에 호소해도 오히려 비난받고 죄인 취급당해 기가 막히고 억울함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본권리도 보장 못하는 사회에 죽음으로라도 경종을 울리고 싶은 분노가 솟구침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국가가 무책임하니 자살자의 심정이 이해됨	각인된 거부의 기억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내며 거부할 것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두려움		
1초만에 싫다고 돌아서는 거부의 장면이 뇌리에 박혀 반복적으로 떠오름		
AP와 확대가족의 거친 욕설과 모욕에 수치스러움	극심한 신체화와 해리	
면접 시간만 되면 심장이 떨리고 터질 것 같이 불안하고 온몸이 아픔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칠 것 같은 공황 증상과 해리가 생김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 체중감소, 탈모, 악몽, 불면증 등 극심한 신체증상	사별과 다름없는 단절의 고통	
이혼보다 더 큰 고통은 자녀와의 친륜이 끊기는 것		
부모지만 살아있는 자식을 볼 수 없고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슬픔		
그 나이에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몰래 그리워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짐	부모로서 실격인 존재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무가치함		
낳아놓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능감		
부모 역할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는 자책	생이별로 붕괴된 삶	
불안정한 감정기복, 흥미저하, 무기력 등 일상(직업)을 지탱하기가 어려움		
직장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함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되어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외롭고 공허해 짐		
아이들이 없는 삶은 고통뿐이니 그만 끝내자는 자살충동이 올라옴		

맹목적 거부 앞에서 충격과 죄책감, 자기비하를 넘어서 존재에 대한 회의에 봉착했다.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흔들리며 깊은 무력감에 살아갈 의욕을 잃고 폐인처럼 일상을 내려놓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건강, 직업, 관계 모두에 타격을 받았고 자살 충동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자식이 내 삶의 80%예요. 내 아들이 없는데 돈, 직업이 무슨 상관이나, 다 공허하고 의미가 없어요. (중략) 아이의 흔적을 볼 때마다 다시는 아무 것도 못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맥락적 조건의 영향을 조절하고, 작용/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조건이다(정진철, 양난미, 2021). 본 연구에서는 ‘상황을 악용하는 AP’, ‘법원, 기관, 학교의 삼각동맹’, ‘천륜보다 형식만을 말하는 비정한 전문가 집단’, ‘부모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 ‘고통을 담아주지 못하는 원가족’,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과 지인의 지지’로 나타났다.

상황을 악용하는 AP. 코로나로 인해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는 문을 닫았고 대인접촉이 제한되었다. AP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면접교섭을 무기한 연기사켰고 연락이 두절되어 아이를 수 개월간 만날 수 없었다.

“그때가 코로나 시기 이제 5인 이상 이거 안 되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만나야 할 일이 있나,

지금 이렇게 문자로 계속하면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꼭 만나서 자기 허락 없이 아이를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8)

법원, 기관, 학교의 삼각동맹. 양육 연속성에 근거한 양육권 판정 기준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합의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의 안전을 확인코자 경찰과 교육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편파적이고 경직된 처리에 낙담하였다.

“아이가 거부하는데 아이 힘들게 왜 찾아왔냐고 그런 식으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은 양육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규칙이래요. 제가 계속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께도 말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다 말을 했는데 이게 학교 규칙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연구참여자 9)

천륜보다 형식만을 말하는 비정한 전문가 집단. 연구참여자들은 법조인, 정신건강전문가, 가사조사관들로부터 억울한 처지를 이해받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무성의하고 비정한 처우에 좌절하였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본인들은 장소 제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사관님한테 제가 아이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오시냐고 물었거든요. 그런 거 없대요. ‘그냥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다. 안 됐다. 애가 거부해서 못 했다.

표 5. 부모따돌림의 중재적 조건

개념	하위범주	범주
면접교섭센터가 문을 닫고 면접교섭은 무기한 연기됨	팬데믹을 기회로 한 면접교섭 거부	상황을 악용하는 AP
코로나 핑계로 계속 볼 수 없어 캠핑카를 가져가 만나기도 함		
코로나로 인해 면접을 강제하기 힘들어짐		
황사, 미세먼지, 감기 등을 이유로 예민하게 굴며 마스크를 쓰게 하는 양육자	마스크에 가려진 자녀 얼굴	
마스크 쓰기를 강요해서 아이 얼굴을 제대로 못 봄		
양육연속성에 근거한 양육자 지정 기준은 분리된 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AP에게만 유리한 사법체계	
양육비와 달리 집행조서가 없어 면접교섭 이행불능에 속수무책인 법 시스템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됨		
국제아동탈취 인정되고 반환명령 받았지만 관련 법령의 미비로 무산됨		
면접교섭 당일 아이의 소재지 파악위해 경찰에 연락했지만 성의 없이 처리됨	경찰의 편파적 처리	법원, 기관, 학교의 삼각동맹
AP의 스토킹, 주거침입,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경찰의 차가운 시선을 받음		
면접교섭당일 거부당해 경찰에 연락하니 법원에서 승인받으라며 귀가 조치함		
1분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접근까지도 차단하며 통제하는 교사	교육기관의 경직된 대처	
자식을 보러 왔을 뿐인데 교사들은 자신을 의심하며 양육자에게 연락함		
학교에 찾아가 내가 양육권자라 호소했지만 외부인 취급하며 밀어냄		
부모따돌림을 이해 못하는 상담사의 조언에 답답함이 가중됨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무지와 따돌림 공모	천륜보다 형식만을 말하는 비정한 전문가 집단
정신과 의사는 부모따돌림 주장을 불쾌해 함		
일방(AP)의 비난에 근거한 편파적인 상담 소견서를 제출함		
따돌림상황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불안에 대한 이해 없이 아이의 행동만을 보고 TP를 거부한다고 판단함	가사조사관와 상담위원의 이해부족과 가세	
아이가 기피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상담위원의 말에 상처받음		
AP의 영상통화 방해에 도움을 부탁하니 분란 일으키면 판사에 연락해 중단시킨다고 으름장을 놓음		
아이가 크면 엄마를 찾아오니 기다리라는 비전문가적인 말을 함	법조인의 외면과 무관심	
1분이라도 봤으니까 된 거 아니냐는 판사의 말에 절망함		
변호사는 부모따돌림 주장은 상황만 복잡하게 한다며 급히 소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함		
면접교섭 불이행 확인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원칙적인 지시만 하는 판사		

표 5. 부모따돌림의 중재적 조건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힘들	PA를 모르는 지인들의 공감 부족	부모 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
부모따돌림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을 모른 채 무의미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들		
나약해지지 말라고 채찍질하는 공감 없는 충고에 마음이 더 힘들어짐		
자녀를 안 키우고 있다고 하면 하자있는 부모, 죄인 취급하는 시선	비양육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편견과 무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녀 또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쉽게 판단함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범석이나는 비아냥이 느껴져 속이 터짐		
아이 보고 싶어 울었더니 부모에게 오히려 욕을 먹음	내 가족의 냉담함	고통을 담아주지 못하는 원가족
너도 문제 있었으니 그런 일 겪는 거 아니냐며 비난함		
소송비용 감당할 수 있겠냐며 냉대하고 거리가 멀어짐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며 괴로움을 무마시킴	무책임한 가족의 의례적인 위로	
가족들도 속상하니 서서히 나의 고통스런 호소를 멀리하려 함		
아이에 집착하지 말고 새 출발 하라는 말에 상처받음		
부모따돌림을 이해하며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	든든히 버텨주는 가족의 힘	버텨목이 되어 준 가족과 지인의 지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로 힘이 됨		
손녀를 그리워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지치지 말자고 마음을 다 잡음		
카페에서 같은 처지의 부모들과 고통스런 처지를 나누며 뭉침	지인들의 지지로 희망 파지	
나의 처지에 분노하고 올려주는 지인들의 힘으로 버텨		
면접교섭에 같이 가서 AP의 횡포의 목격자가 되어줌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것,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8)

부모따돌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
연구참여자들은 하자가 있는 부모, 자녀조차 버린 죄인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부모따돌림에 대한 이해 없이 던지는 공감 없는 충

고와 비수 같은 조언은 크고 작은 생채기를 냈다.

“(어려움을) 돌싱 카페 이런 데다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도 이제 양육자, 비양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했는데 왜 애들을 안 키우세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양육권을 왜 뺏겼어요?’ 이런 일들이, 이

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연구참여
여자 6)

고통을 담아주지 못하는 원가족. 연구참여
자들의 원가족이 자녀를 잃은 애끓는 슬픔과
상실, 고통을 담아주지 못하고 비난과 상투적
인 위로로 외면할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더
해지곤 하였다.

“근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안고 싶
어 해서 울었더니 이제 저희 아빠가 저
한테 욕을 했거든요. 병신 같이 운다고..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연
구참여여자 4)

버텨목이 되어준 가족과 지인의 지지. 연
구참여자들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는 심리적인 충격과 소진을 완
충하였으며, 문제 상황을 직면하여 수용하고
행동하는 용기로 이어졌다.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혼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점점 의지가
강해지는 걸 보시니까 지금은 많이 응원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애들 데리고
와서 봤으면 좋겠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지가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
더라고요. 저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응
원도 해주고 가족들이랑도 사이가 좋아
졌어요.” (연구참여여자 6)

작용 / 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연구참여자들이 현상
을 인식하고 조절하고 대응하는 데 쓰이는 전
략 혹은 대처와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손

상된 부모정체성의 회복 노력’, ‘부모따돌림의
구조 인지’,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입한 관계
회복 노력’, ‘소송대응으로 지속적인 법적 압
박’, ‘피해자 간 연대와 인식전환 노력’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부모정체성의 회복 노력. 연구참여
자들은 사별과 다름없는 자녀 상실의 아픔으
로 무너진 자아와 삶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산을 누비기도 하고 일에 매달렸다.
비슷한 사건의 해외 판례를 찾고 심리학을 공
부하며 전배우자와 아이의 심리를 이해하고
마음의 고통을 덜며 손상된 부모정체성을 회
복하고자 노력했다.

“딸 셋을 다 잃고 모든 소송에서 지고
원망과 배신감으로 울부짖었어요. 살아남
으려고 견기 시작했어요. 산에 다니면서
비명 지르고 화를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다쳤을 때 아~ 하고 소리내듯이....대체
부인이 왜 그랬나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미워해야 득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큰애가 당했을 것을 생각하면 마
음 아프고 아무런 대책도 못해준 것이
미안하고...” (연구참여여자 2)

부모따돌림의 구조 인지. 충격에서 벗어나
정보를 찾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모따돌림’을 알게 되
었다. 그간의 상황이 이해되고 혼란과 굴욕에
서 벗어나는 계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피해
자모임에 가입하고 자조모임에 나가며 위로와
지지를 받고 부모따돌림을 공부해 나갔다.

“부모따돌림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구

표 6.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개념	하위범주	범주
살기 위해 걷기 시작하고 산을 누비고 다니며 상처를 달랠 너무 괴로워 마음 털어놓으며 심리상담을 받고 답답해서 사주 보러 다님 바쁘려고 일에 매달리고 좋은 사람이 되어 아이를 지키자는 생각으로 버텨	무너진 자아를 추스림	손상된 부모 정체성의 회복
해의 판례를 뒤지며 부모따돌림 이혼사례와 판결내용을 공부함 아이가 왜 저럴까 아동심리 공부하며 강의 듣고, AP의 성격특성과 행동패턴을 알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함	이혼과 심리학공부	
이혼 카페에서 같은 처지의 부모들에게서 위로받고 대처법을 찾음 온갖 사이트를 뒤지며 내 처지를 이해받을 정보를 미친 듯이 찾음	SNS에서의 지지 정보	
해의 논문과 인터넷에서 부모따돌림을 알게 되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 혼란과 골육에서 벗어나 방향성을 찾게 되었음 부모따돌림 카페와 모임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알고 위로와 용기를 얻음 부모따돌림을 알고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 이해됨	부모따돌림의 심층이해	부모따돌림의 구조 인지
아이 심리 이해하니 포기하면 아이를 버리는 거라는 인식을 하게 됨 내가 포기하면 아이도 포기할 거니 거부당하더라도 만날 결심을 함 아이에게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며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함	체념의 유혹 극복	
아이 편지와 사진을 보면서 좋은 기억 떠올리며 마인드컨트를 함 아이의 거부에 상처받지 말고 버티며 하고 싶은 말 하도록 준비함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 공부하고 명상	만나기 전 마인드컨트를	
영상통화 중 잠깐이라도 아이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장난감, 코스튬을 입고 아이의 거부감을 없애려 애쓰 10초 보려고 왕복 4~5시간 걸려 찾아가고 사랑한다고 말해 줌 지인과 함께 가서 상대의 방해 행동을 억제하고 굳건함을 보여줌 통역사를 고용해서 언어장벽을 없애고 공동놀이를 준비함	단련 자녀의 마음의 문 열기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입한 관계 회복노력
면접교섭 이행명령, 허가청구, 과태료청구 소송을 이어감 양육권변경청구소송을 시작하였고 상대의 부당행위에 대응하며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 에게 최선을 다하며 승소판결을 받음 아동반환집행 무산되었지만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내 자녀인도 시도 수입의 반을 소송에 쓰고, 실력 있는 변호사 수입 위해 투잡을 뛰	면접교섭 이행 소송을 이어가며 정당성 주장	
부모따돌림은 아동 정서학대이므로 학대행동 입증하고 형사고소 함 면접교섭 방해 중 발생한 폭행을 고소하여 약식기소의견 받아냄. 불법적인 아동탈취와 은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상대의 불법행위 대응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고 공감과 연대감을 경험하며 힘을 얻음 소송경험과 법률 지식을 나누며 초보 피해자들을 돕고 외국논문을 번역해서 법원제출용으 로 공유함 부모따돌림 피해부모 탄원서 쓰기 운동에 참여 카페에 외국판례와 논문을 찾아 올리며 부모따돌림을 세상에 알림 가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며 홍보전단을 돌림 러닝머신 달리기 시위로 가정법원의 문제점을 알리며 언론에 어필함	동병상련의 위로와 도움 부모따돌림 실체의 대중홍보	소송대응으로 법적 압박 피해자간 연대와 인식 전환 노력

원이었어요. 싫다는 아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건지, 그래도 설득하고 만나야 하는 건지 헷갈렸었어요. 아이들의 거부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정서적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나 혼자만 아니고 많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든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분들 보면서 힘든데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 힘이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8)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입한 관계회복 노력. 부모따돌림이 정서학대이며 아이는 정서적 장애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접촉을 포기하는 것은 아이를 버리게 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고 잠시라도 자녀의 시선을 유지하려 온갖 노력을 동원했다.

“왕복 5시간 걸려 매일 2번 내려가요. 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오지마세요’ 하는데 ‘네가 이렇게 예쁜데 아빠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라고 말해주요. 표정은 굳어있었지만 돌아가는 걸음걸이가 다르더라고요. 10초라도 아이를 보며 잘 크고 있는지 혹시 학대피해는 없는지 체크해요. 전 부인이 폭력적 성향이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 휘두르던 폭력이 아이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잠깐이지만 꾸준히 만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진 못하겠구나 생각해요. 그렇게 아이를 지켜야죠.” (연구참여자 3)

소송대응으로 지속적인 법적 압박. 부모따돌림이 벌어지면 법원의 권한과 절차 없이는

자녀들을 만날 길이 없으므로, 소송대응으로 상대의 부당행위에 압박을 가했다. 양육권변경청구소송을 시작한 어머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이들을 1년 동안 보지 못한 저에게 더 이상 최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양육권변경청구 소송을 하는 동안 서면과 탄원서에 아이들에게 양쪽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1박2일 간의 면접교섭에 최선을 다했어요. 1년 7개월 동안 상대의 공격과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하고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승소하게 되었어요. 예상대로 상대가 항소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7)

피해자간 연대와 인식전환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자조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연대감을 경험함은 물론, 소송경험과 법률지식과 논문 공유, 탄원서쓰기운동 등의 활동에 동참했다. 러닝머신 달리기로 한국의 국제아동탈취의 문제점을 알리거나, 가정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통해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따돌림이 아동학대임을 법원과 우리 사회에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오래되어 미국의 친구들과 어떤 종류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대부분 화상 채팅, 전화, 소셜미디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시위는 제자리걸음인 한국의 가정법원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친구들의 가상적인 격려와 지지

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특히 한국 내에서 따돌림의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 함께 투쟁하면서 공감과 연대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12)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이 개입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끝나지 않은 상실’, ‘자기 직면과 회복탄력성의 발견’, ‘나보다는 아이의 부모됨을 고민’, ‘재회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 ‘원망에서 벗어나 소명으로 승화’가 결과로 나타났다.

끝나지 않은 상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는 모호한 상실상태였다. Boss(2002)에 의하면 모호한 상실은 맥락과 종결을 알 수 없는 불확실 때문에 스스로도 타당화가 어렵고 타인에게도 이해받기 힘들다. 사별로 인한 상실과 달리 자녀상실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웠고 슬픔을 나누면서 흘려보낼 기회 또한 부족했다. 자녀의 거부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선과 낙인은 이를 강화시켰다.

“저는 이미 멘탈이 무너졌고 힘도 하나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만 나쁜 사람 됐고.. 그냥 상처받고 강물에 제 몸이 떠내려가듯이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중략) 철벽을 좀 친다고 해야 되나. 나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세상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게 안 되니까 어려워요.” (연구 참여자 9)

자기직면과 회복탄력성의 발견. 부모따돌림 공부를 통해 자신이 오래 전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달았고, 감정을 민감하게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참여자들은 절망을 견뎌가는 내면의 저력을 발견했고 역경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해가기 시작했다.

“무너지지 않고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았어요. 이 부모따돌림 모임도 찾았고, 상담소도 찾고, 변호사도 스스로 만났고, 적극적으로 제가 혼자서 해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아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말할 수도 없이 힘들었지만, 그런 거를 그래도 이 악물고 할 걸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대단하다, 잘 이겨냈더라는 그런 자부심, 어떤 자기 효능감이 좀 올라갔다고 할까. ‘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죠. 내가 이런 걸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연구 참여자 7)

나보다는 아이의 부모됨을 고민.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따돌림의 구조를 이해하며 AP에 대해 분노와 복수심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조망하기 시작했다. 자녀의 인성과 정서에 미칠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심각하게 우려했으며, 스스로 신뢰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표 7. 부모따돌림 피해부모 경험의 결론

개념	하위범주	범주
자녀의 흔적을 볼 때마다 사무치게 그리우나 만날 수가 없음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는 관계	끝나지 않은 상실
부모역할을 못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슬픔		
끝을 알 수 없으니 상실을 받아들이 수가 없고 단념할 수가 없음		
살아있는 자녀를 잃은 슬픔을 혼자 속으로 삭임	에도되지 못하는 슬픔	
이해 부족과 부정적 판단을 미리 예측하고 자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음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난처해서 얼버무림		
엄마인데 거부당했다는 사회적 시선은 수치스럽고 더욱 감당하기 어려움	관계에서의 예민성과 거리두기	
현실 모르는 타인들의 판단과 조언에 예민해짐		
사람들이 내 뒤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신뢰할 수가 없음		
사적인 이야기를 개방하지 않고 거리를 두게 되어 관계가 피상적이고 협소해짐	새로운 자기 발견의 기회	
부모따돌림 현상을 통해 살아온 삶과 관계를 돌아보게 됨		
AP의 행동과 상황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 지면서 후회와 이해가 교차함		
무조건 참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했어야 함을 깨달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자기주장을 하게 됨		
절망 속에서도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해가는 내면의 힘을 발견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김	증가된 자기효능감	
복수심보다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녀의 입장을 먼저 생각		
세상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음	복수심보다는 자녀 행복이 먼저	나보다는 아이의 부모됨을 고민
부모따돌림 지식을 통해 자녀는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고민		
자녀의 상처가 걱정되어 권리를 포기할지 자녀의 관점에서 고민하기도 함		
AP의 과도한 통제가 자녀의 정서발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고통스러움	염려에서 관계회복 시도로의 전환	
자녀에게는 두 부모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서고 책임을 다하고 싶음		
부모됨을 고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결 시도		
계속 거부하는 아이를 보면 언젠가 볼 수 있다는 희망이 흔들리지만 자녀는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되뇌임	저버릴 수 없는 희망	재희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
부모가 사랑해준 기억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램		
아이와 좋았던 관계를 떠올리고, AP 몰래 친밀함을 보였던 장면을 기억		
거부하지만 부모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녀의 속마음을 헤아림		
아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감	자녀와 함께 할 미래 계획	
자녀는 부모를 원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는 믿음으로 건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마음으로 부모따돌림 대처 공부하며 만남을 염원		
가족, 지인, 학교 교사, 전문가들에게 알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개인의 힘으로는 바위에 계란치기인 현실에 허탈함	부당한 세상에 대한 원망	
법시스템의 허술함과 요지부동 태도가 이어져 법에 대한 믿음이 사라짐		
아동이 부모 양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	자녀와 부모의 권리회복활동	원망에서 소명으로 승화
부모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음		
법적 개선을 위해 언론과 사회에 다양한 의견 개진과 활동을 도움		
단독양육제도를 넘어서 공동양육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냄		
건강한 아동과 사회라는 더 큰 가치를 가슴에 품고 활동을 지속해 감		

“애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할까봐 그리고 애들을 못 봐서 그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됐어요. 이게 그렇게 구속을 받아서 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산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더 속이 상하더라고. 지금은 제가 연락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되요.” (연구참여자 11)

재회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 계속 거부하는 아이를 보면 관계회복의 희망이 흔들리지만 표면의 거부가 아이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아이가 커서 부모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애썼는지 느끼고 고마워하며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고통스러운 오늘을 버텼다.

“제가 처음으로 육아를 하는 거라 보육교사 자격증을 땀었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키우려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를 혼자 키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애를 키우게 되면 이제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야 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이가) 메시지 답장을 안 하더라도 그냥 계속 보여주고 선물도 전달하고 편지도 주고 아이들한테 마음을 꾸준히 표현하려고요. 좀 크면 더 오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냥 그 희망을 가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9)

원망에서 벗어나 소명으로 승화. 부당한 법시스템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팽배해질 때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피해자간의 동병상련은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건강한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는 좀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바꿀 수 있겠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좀 바뀌볼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그래서 세상에 이런 아이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참 힘이 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얻은 병을 사람으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바뀌지 않겠지만 계속 두드리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패러다임 모형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의 의미와 관계를 분석한 뒤,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현상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조건들과 현상들의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체계화한 것이다(Strauss & Cobin, 1998).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부모따돌림



그림 1. 부모따돌림 피해부모 경험의 패러다임 모형

피해부모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과정분석

과정분석이란 중심현상에 대해 어떻게 작용 / 상호작용을 조정하는지를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다(Struass & Co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따돌림 피해부모의 경험 및 대처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 현상을 유발하는 조건과 맥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충격/분

노’, ‘상실/좌절’, ‘PA인식과 상처 추스림’, ‘희망/절망의 롤러코스터’,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의 총 5단계의 과정이 도출되었다.

충격/분노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녀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비난하고 거칠게 거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참여자들은 AP가 자신과 자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강압적 통제를 가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AP는 아동학대 고소, 스토킹 신고 등의 법적 공격을 가해오지만, 이를 다물

수 있는 법적제도의 부재와 전문가의 몰이해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 갔다.

상실/좌절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주요한 삶의 의미였던 부모 역할을 잃은 것을 가장 괴로워하였다.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고,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거나 지지받을 수도 없었다. 참여자들은 자녀와의 단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고, 자녀가 겪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영향들을 걱정하는 다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사별보다 더한 고통으로 지각되었다. 참여자들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AP와 자녀를 직접 만나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고 자녀의 학교, 법률가, 상담자를 찾아가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무력감과 좌절이 반복되었다.

부모따돌림 인식과 상처 추스림 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부모따돌림이라는 현상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쉬어지고 상처를 추스릴 힘을 충전하게 된다.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이를 다룰 제도가 부재한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 공부하여 해결할 마음을 먹게 된다. 피해자협회나 자조모임의 위로와 지지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부모”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나 보다는 자녀의 욕구를 중심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놓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희망/절망의 롤러코스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자녀와의 회복은 요원하므로 절망은 시시때때로 찾아왔다. 자녀의 부드러운 태도에 희망을 품었다가도 다시 거세진 거부가 반복되면 얼마나 더 많은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반복되는 소송 대응으로 인해 재정적,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자녀에겐 반드시 부모가 필요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고 되뇌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단 10초의 만남을 위해 왕복 6시간을 달려가고, 생일과 크리스마스에는 전달될지 불분명한 선물을 보냈다. 문자와 영상 등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하였다. 자녀와 재회 후 어떻게 살지를 꿈꾸고 계획하면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부모따돌림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다.

권리회복을 위한 투쟁

부모따돌림의 폐해가 수용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겪으며 연구참여자들은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형국임을 깨닫는다. 참여자들은 동병상련의 피해자와 함께 도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불공정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고,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소송을 이어갔다. 1인 시위, 홍보지 제작, 진정서 쓰기, 카툰과 영상 제작, 뉴스레터 발행하기 등 내 자녀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동이 양쪽 부모를 자유롭게 만나고 자랄 수 있는 기본 권리가 구현되는 건강한 사회, 이혼가정에서 공동양육제도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을 모색해 갔다.

핵심범주: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며 천륜 회복을 위한 고군분투

본 연구는 개념적 요약, 연구자의 메모, 동료토론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범주(Strauss & Cobin, 1998)를 구성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며 천륜 회복을 위한 고군분투’로 나타났다. 핵심범주가 축코딩에서 출현한 범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과정분석의 결과를 연결하여 그림 2에 제시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굴욕적인 따돌림과 자녀의 거부로 인한 천륜상실의 고통에 처해있었다. 이들은 한 때 헌신했던 가족 구성원들인 AP와 자녀, AP의 원가족 모두에게 존재를 거부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법시스템과 전문가들에게 자녀 상실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자녀에게 두 부

모 모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했지만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잃기도 했다. 그러나 충격과 혼란을 버터내는 노력 속에서 알게 된 부모따돌림 지식과 동병상련의 연대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희망의 끈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부모의 의미를 성찰하며 부모됨과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해나갔다. 미래에 자녀의 공감적이고 무조건적인 애착대상이 되어줄 재회의 날만을 희망하며 상실의 고통을 안고 천륜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자녀를 향한 소송대응과 목소리내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활동과 같았다. 모든 활동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자 자녀가 살아갈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에게 거부된 부모라는 굴욕, 현실의 냉대와 불공정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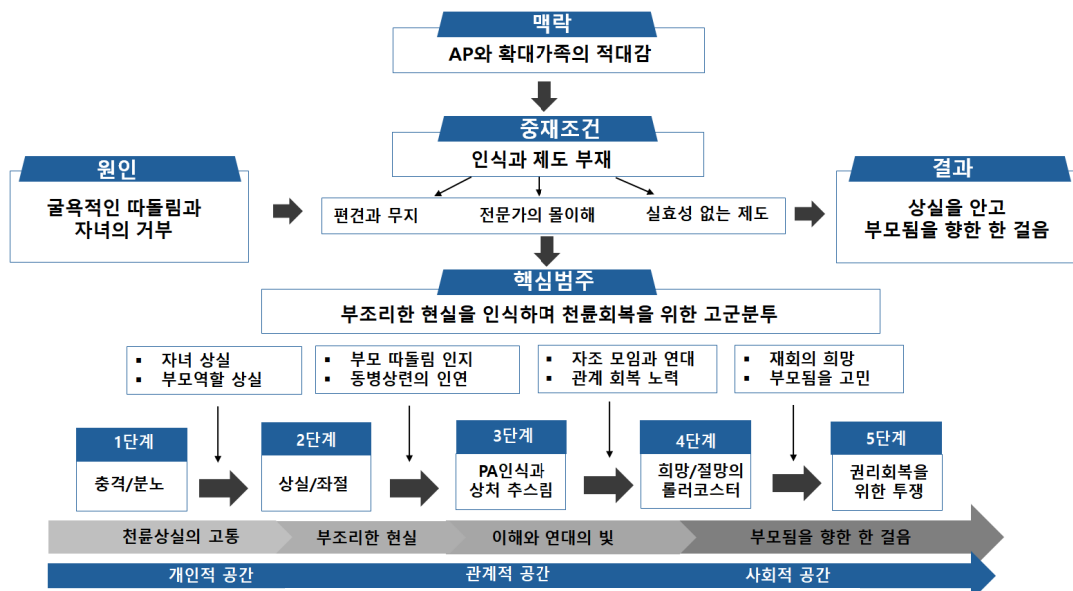


그림 2.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며 천륜회복을 위한 고군분투 모델의 전체과정

에 맞서면서 굴러 떨어지지만 다시금 돌을 떠밀며 언덕을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시지프스처럼, 부조리를 정면으로 직시하며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부모됨의 역사를 새롭게 쓰려는 각성과 결단으로 나아갔다.

논 의

본 연구는 이혼가정에서 부모따돌림의 영향으로 자녀로부터 거부되고 단절된 부모들의 경험을 밝히고 이들의 고통과 대응의 어려움을 살펴 이 현상을 심층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의 주요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해외연구들과 비교하며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부모였지만 AP의 강압적 통제와 심리적 조종과 세뇌에 의해 장기간 분리되며 자녀들로부터 거부되었다. 이런 양상은 부모따돌림이 TP를 비방하며 따돌림을 세뇌하는 AP와 비방에 기여하는 자녀의 연합에 의해 발전해 간다는 연구들(Gardner, 1985; 문덕수 등, 2020)과 일치한다. AP의 캠페인에 조종되고 세뇌된 아이들은 서서히 부모따돌림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판단자(independent thinker)’가 되어(Gardner, 1987) AP와의 연맹을 강화해 간다.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아이가 동생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따돌림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부모따돌림의 큰 난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인과요인들은 AP의 자기애적 성격 요인, 과잉간섭양육, 원가족 의존 등의 맥락

적 조건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간 애착을 형성하고 결혼연합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AP의 원가족 의존, 자녀양육을 독점하는 과잉간섭양육(gatekeeping)은 결혼생활 내내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혼갈등이 시작되면서 AP는 자녀탈취와 연락두절 및 자녀에 대한 심리적 조종과 이간, 법적·행정적 공격 등 TP를 향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이어갔다. 이 때 AP의 원가족이나 재혼한 계부모와의 연합전선은 TP를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부모따돌림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AP의 재혼은 부모따돌림을 촉발하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Baker & Darnall, 2006; Kelly & Johnson, 2001). 그러나 원가족이 가세하여 따돌림연합을 이루는 것은 외국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이는 한국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인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송미강, 2016). 21세기 이후 한국사회에도 개인주의적 행동과 생활양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지만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대한 원가족의 승인과 인정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가족의 역할은 출산 이후 양육지원으로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삶의 혼란이나 위기에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한다(장경섭, 2018). 이혼 위기에 처한 부모가 정서적 위기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원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가족이 이혼 과정과 자녀양육에 깊이 간섭하며 연루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주의는 부모따돌림을 촉발하고 당연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의 중심현상은 ‘영원한 상실의 예기불안’과 ‘자녀 없는

삶의 무의미'로 천륜을 상실한 비탄과 고통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 끊임없는 불안, 분노, 슬픔, 상실감과 무력감과 자살충동을 보고했다. 또한 공황증상, 비현실감, 악몽, 활동에 대한 현저한 관심과 흥미저하, 직업에서의 대처능력 손상, 외상 관련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다수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따돌림이 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만들고 심리적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경험임을 드러낸다. 여기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칫 통제할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인해 스스로 관계에서 물러남으로써 부모따돌림이 고착되고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구하지 못하고 우울과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TP가 좌절과 무기력을 겪고, 현재의 경험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하며,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Balmer et al., 2018; Poustie et al., 2018).

자녀의 거부, AP의 적대적인 공격, 그리고 법적인 과정에서의 거듭되는 좌절은 부모로서 실패감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불러일으키므로 무엇보다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개인의 내부에서 찾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부모따돌림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부모됨의 의미를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Woodall(2017)은 피해부모가 자녀와 단절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언

제든 자녀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안정되고 건강한 부모가 되어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와 방향을 되찾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살아있지만 만날 수 없는 모호한 상실(Boss, 2002)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고통스러워했다. 이들은 사별처럼 상실을 공식화할 수 없었고 사회적으로 이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는 Doka(1989)가 제시한 권리 박탈된 슬픔(disenfranchised grief)과 일치했다. 표출할 수 없는 슬픔이 피해부모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TP들을 비난하지 않고 고통과 상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 사회적 지지를 잃은 겹겹의 상실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회적인 지지자원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종결할 수 없는 상실이 지속되는 피해자들에게 모호한 상황을 견디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챙김과 자기자비집단 등의 자기 돌봄 프로그램이 고통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피해자 자조모임에서의 위로와 연대활동을 통해 좌절과 고통을 승화하고 사회인식 개선 활동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런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자녀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앞으로 생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47%가 미취학 아동이고, 80%가 부모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하는 10세 미만의 자녀를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에게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걱정과 상심이 얼마나 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AP의 강압적 통제와 비방 속에서 자녀의 도덕성과 사회성, 인격이 왜곡될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Poustie 등(2018)의 연구에서도 TP들은 AP의 부모따돌림 행동에 상처를 입은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국의 연구들이 부모따돌림을 아동 학대와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수반되는 가족폭력(Harman et al., 2018)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을 볼 때 참여자들의 우려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 2명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고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절이 고착되기 전에 부모따돌림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초기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거부와 단절에 대처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이 국내에서도 시급하다고 보여 진다.

부모따돌림의 중심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을 조절하는 중재적 요인의 핵심은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법원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한 부모가 자녀와 또 다른 부모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그 부모에 대한 미움을 주입하여 관계를 훼손시키는 사례를 가족법 사례집에 언급하기 시작했다(Rand, 2013). 이 현상이 부모따돌림증후군으로 공식화(Gardner, 1985)된 이후에는 학계의 연구와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과 민간이 협력한 가족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따돌림의 해악에 대처하고 있다(Harman et al., 2019; Warshak, 2015b).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서 일하는 법관 및 가사조사관과 가사상담위원, 심지어 연구참여자의 변호사조차도 이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고려하지 않으려 했다.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학교와 경찰 등 공적 기관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중첩되었고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거부와 적대감 표출을 부모따돌림 현상으로 객관화할 수 없던 상황에서 공적기관으로부터의 냉대는 자녀에게 거부된 열등한 패배자라는 굴욕과 낙인효과로 작용했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립을 증폭시켰다.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기적적으로 자녀 관계를 회복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자녀가 정서적 장애 상태임을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에 나서게 되었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기 힘든 법원 판결과 현실의 냉대를 무릎쓰고 소송전략을 짜나갔다. 또한 피해자 카페와 협회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자조모임에 참여해 동병상련의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았다. 외국의 연구에서 TP의 회복탄력성, 자녀의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높은 동기에서 보여지 듯 연구참여자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녀의 거부를 이해하며 고군분투해 나갔다. 이는 고통스러운 부모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깨닫고 삶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할 때 회복할 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이 굴욕과 상실, 좌절과 분노를 표출하며 정서적으로 공감과 위로받는 경험, 부모따돌림의 구조와 역동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된 인지적 이해, 피해자간 지지와 사회적 연대는 패배

감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부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피해부모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따돌림은 삼각화(Amato & Afifi, 2006; Bowen, 1978)가 일어나 자녀가 부모 중간에 끼어 충성갈등을 겪는 것과는 다른 가족역동을 생성한다. 부모따돌림은 충성갈등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자녀는 자신이 선호하는 부모와 연대를 맺고 그 부모를 동일시하며 다른 부모에게 증오를 품게 된다. 이러한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부모따돌림 피해자들의 호소를 다루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며(Harman et al., 2018), AP의 조종과 세뇌 및 아동의 극단적인 거부라는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고 AP와 자녀의 욕구에 부응하며 같은 방식으로 TP를 소외시킬 수 있다(Reay, 2015). 부모따돌림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학적 특성이나 성별을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벌어진다(Harman et al., 2019). 부모따돌림의 역동을 모르는 전문가가 오히려 이 현상을 유지시키는 동맹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Gardner, 1998; Kelly & Johnston, 2001), 이 현상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정신건강 영역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피해부모들은 이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실효성 없는 제도로 인해 소외와 부당함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심리상담에 찾아온 피해자들의 상황과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성과 명예

를 회복하는 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옹호하며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은 부모따돌림 피해부모들과의 심리상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개입은 피해부모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함께 정체감회복의 심리적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부모따돌림의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부모따돌림은 일반가정(intact family)에서도 유사한 역동을 가지고 벌어지므로(Baker, 2007), 이 현상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사회단체, 법조계에서 부모따돌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이론을 객관하기에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여 부모따돌림행동과 전략을 보다 객관적으로 유형화하는 연구, TP부모들에 대한 FGI(focused group interview) 연구, 아동기에 부모따돌림을 경험한 성인들의 삶의 경로에 대한 연구, 부모따돌림 가족통합 치료프로그램 연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제아동인권센터 (1989). <http://incrc.org/uncrc/>
권혜경, 이희경 (2021). 상담자의 내담자 강점 인식 발달 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27-1562.
김상용 (2014). 절차보조인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 *사법발전재단*, 27(1), 67-101
노컷뉴스 (2020년 2월 17일). “좋은 아빠 되고

- 과, 고유정 피해자의 부성애”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515265&memberNo=11312542&vType=VERTICAL>
- 문덕수, 광영숙, 이명훈, 정동선 (2020). Custody evaluation in high-conflict situation focused on domestic violence and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1(2), 66-73.
- 박득배 (2018). 자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권, 가족법연구, 32(1), 149-182.
- 변시영 (2020). 내담자 자살 위기와 사건을 경험한 기업 상담자의 극복 과정: 근거이론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037-2063.
- 서종희 (2020).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 독일법을 참조하여. 법학논총, 27(3), 175-217.
- 송미강 (2016). 이혼가정의 부모따돌림증후군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학회, 27(3), 59-103.
- 송미강 (2021). 부모따돌림증후군: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아동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5(3), 259-284.
- 심석용 (2023년 5월 6일). “엄마가 무서워” 이혼녀 올린 아이 한마디...면접교섭의 그늘. 중앙일보.
<http://www.joonang.co.kr/article/2560466>
- YTN 뉴스 (2023년 8월 21일). “학대 의심되는데 못 만나요. ‘부모따돌림’에 속타는 아빠” <http://tv.naver.com/v/39271349>
- 유선희 (2023년 11월 23일). ‘학대로 시우가 떠난 지 246일, 엄마는 1인 시위 나섰다’. 경향신문.
<http://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31113001#c2b>
- 장경섭 (2018). “가족자유주의, 위험가족, 인구위기: 21세기 한국 사회의 딜레마.” 지식의 지평, 24(3), 40-52.
- 정진철, 양난미 (2021). 전문상담교사의 집단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63-1596.
- JTBC 뉴스룸 (2020년 10월 4일). “제2의 고유정 사건 막아라, 이혼가정 중립지대 면접교섭센터” <https://tv.naver.com/16064828>
- JTBC 뉴스룸 (2023년 11월 16일). “이혼 후 부모따돌림, 아이 못 보는 피눈물을 아나요... 강제력없는 면접교섭권” <https://tv.naver.com/v/42940706>
- Amato, P. R., & Affi, T. D. (2006). Feeling caught between parents: Adult children's relations with par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222-23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ifth Edition*. USA: Psychiatric Pub Inc.
- Baker, A. J. (200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alienation on adult children: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4), 289-302.
- Baker, A. J. (2007). *Adult children of a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Breaking the ties that bind*. Norton & Company, Inc.
- Baker, A. J. (202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our-factor model of parental alienation, *Journal of Family therapy* 42(1), 100-118.
- Baker, A. J., & Andre, K. (2008). Working with alienated children & their targeted parents:

- Suggestions for sound practice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1(2), 10-17.
- Baker, A. J. & Darnall, D. (2006). Behaviors and strategies of parental alienation: A survey of parental experienc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5(1-2), 97-124.
- Balmer, S., Matthewson, M., & Haines, J. (2018). Parental alienation: Targeted parent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70(1), 91-98.
- Bernet, W., Gregory, N., Ronald, R., & Reay, K. (2020). Measuring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al alienation and Parental Estrangement: The PARQ-Gap. *Journal of Forensic Sci* 65(4), 1225-1234.
- Boss, P. (2002). Ambiguous loss: Working with families of the missing. *Family Process*, 41(1), 14-17.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 Brock, R. L., & Kochanska, G. (2016).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ecurity with parents, and long-term risk of internalizing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s 2 to 10.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8(1), 45-54.
- Campbell, T. W. (2013). Sexual abuse allegations in the context of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disputes. In D. Lorandos, W. Bernet, & S. R. Sauger(Eds.) *Parental alienation: The handbook for mental health and legal professionals*(163-189).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Ltd.
- Darnall, D. (2011). The psychosocial treatment of parental alienation. *Child &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3), 479-494.
- Doka, K. J. (1989). *Disenfranchised grief: Recognizing hidden sorrow*. Lexington, MA: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Fidler, B. J., & Bala, N. (2010). Children resisting post-separation contact with a parent: Concepts, controversies and conundrums. *Family Court Review*, 48(1), 10-47.
- Friedlander, S. & Walters, M. G. (2010). When a child rejects a parent: Tailoring the intervention to fit the problem. *Family Court Review*, 48(1), 98-111.
- Gardner, RA. (1985). Recent trends in divorce and custody litigation. *Academy Forum*, 29, 3-7.
- Gardner, RA. (1987). *The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and the differentiation between fabricated and genuine child sex abuse*. Cresskill, NJ: Creative Therapeutics.
- Gardner, RA. (1998). *The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a guide for mental health and legal professionals*. (2nd edn). Cresskill, NJ: Creative Therapeutics.
- Gibson, C., Callands, T. A., Magriples, U., Divney, A., & Kershaw, T.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power, and equity among adolescent parents: Relation to child outcomes and parenting.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9(1), 188-195.
- Gordon, R. M., Stoffey, R., & Bottinelli, J. (2008). MMPI-2 findings of primitive defenses in alienating paren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6(3), 211-228.
- Gottlieb, L. J. (2012). *The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A family therapy and collaborative*

- systems approach to amelior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Haines, J., Matthewson, M., & Turnbull, M. (2020). *Understanding and managing parental alienation: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London: Routledge.
- Hands, A. J., & Warshak, R. A. (2011). Parental alie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9(5), 431-443.
- Harman, J. J., Kruk, E., & Hines, D. A. (2018). Parental alienation behaviors: An unacknowledged form of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4(12), 275-1299.
- Harman, J. J., Leder-Elder, S., & Biringen, Z. (2019). Prevalence of adults who are the targets of parental alienating behaviors and their impact: Results from three national poll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6(3), 104471.
- Harman, J. J., Warshak, R. A., Lorandos, D., & Florian, M. J. (2022).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 scientific status of parental alie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8(10), 1887-1911.
- Johnston, J. R., Walters, M. G., & Friedlander, S. (2001). Therapeutic work with alienat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Family Court Review*, 39(3), 316-333.
- Johnston, J. R., Walters, M. G., & Olesen, N. W. (2005). Is it alienating parenting, role reversal or child abuse?: A study of children's rejection of a parent in child custody disputes. *Journal of Emotional Abuse*, 5(4), 191-218.
- Kelly, J. B., & Johnston, J. R. (2001). The alienated child: A Reformulation of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Family Court Review*, 39(3), 249-23966.
- Kelly, J. B., & Johnson, M. P. (2008). Differentiation among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update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Family Court Review*, 46(3), 476-499.
- Lee-Maturana, S., Matthewson, M., & Dwan, C. (2020). Targeted parents surviving parental alienation: Consequences of the alienation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8), 2268-2280.
- Lee-Maturana, S., Matthewson, M., & Dwan, C. (2021). Understanding targeted parents' experience of parental alienation: A qualitative description from their own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9(5), 499-516.
- Lee-Maturana, S., Matthewson, M., Dwan, C., & Norris, K. (2019).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f targeted parents of parental alienation from their own perspectiv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71. 83-91.
- Lincoln, Y. S., & Guba, E. G. (2000).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ent confluences*. In N. K.
- López, T. J., Iglesias, V. N., & García, P. F. (2014). Parental alienation gradient: Strategies for a syndrom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2. 217-231.
- Lorandos (2020). Parental alienation, traditional therapy and family bridges: What works,

- what doesn't and why: Part 1 of 2,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34(1), 9-17.
- Lowenstein, L. F. (2013). Is the concept of parental alienation a meaningful on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54(8), 658-667.
- Marchetti, R. P., Mazza, D., C., ERicci, E., Fontanesi, L., & Verrocchio, M. C. (2022). A comparison of MMPI-2 profiles between parental alienation cases and custody cas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5), 1196-1206.
- Poustie, C., Matthewson, M., & Balmer, S. (2018). The forgotten parent: The targeted parent perspective of parental alien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39(12), 3298-3323.
- Rand, D. C. (2013). The history of parental alienation from early days to modern ties. In D. Lorandos, W. Bernet, & S. R. Sauber (Eds.), *Parental alienation: The handbook for mental health and legal professionals* (pp. 29-321). Springfield, IL, USA: Charles C Thomas.
- Reay, K. M. (2015). Family reflections: A promising therapeutic program designed to treat severely alienated children and their family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3(2), 197-207.
- Saini, M. A., Drozd, L. M., & Olesen, N. W. (2017). Adaptive and maladaptive gatekeeping behaviors and attitudes: Implications for child outcomes after separation and divorce. *Family Court Review*, 55(2), 260-272.
- Sharples, A., Harman, J. J., & Lorandos, D. (2023). Findings of abuse in Families affected by parental alien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11.
- <https://doi.org/10.1007/s10896-023-00575-x>
- Strauss, A.,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Verrocchio, M. C., Marchetti, D., Roma, P., & Ferracuti, S. (2018). Relation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of high-conflict couples who engage in parental alienation. *Ricerche di Psicologia*, 41(4), 679-692.
- Warshark, R. A. (2010a). *Divorce poison new and updated edition: How to protect your family from bad-Mouthing and Brainwashing*. Avon A: N. Y.
- Warshark, R. A. (2010b). Family bridges: Using insights from social science to reconnect parents and alienated children. *Family Court Review*, 48(1), 48-80.
- Warshark, R. A. (2015a). Poison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through the manipulation of nam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3(1), 4-15.
- Warshark, R. A. (2015b). Parental alienation: Overview management, intervention, and practice tip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atrimonial Lawyers*, 28(1), 181-248.
- Woodall, K. (2017). *Understanding parental alienation: learning to cope, helping to heal*.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omas Publisher.
- Wozencraft, T. A., Tauzin, M., & Romero, L.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a college sample and retrospective reports of parental loyalty conflict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60(2), 104-116.

원 고 접 수 일 : 2024. 0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05

게 재 결 정 일 : 2024. 05. 14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s Victimized by Parental Alienation

Mikang Song¹⁾ Eunhee Song²⁾ Joeun Seong³⁾

¹⁾Jiyin Psychoanalytic Counseling Institute / Director

²⁾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oaching, Yonsei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³⁾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oaching, Yonsei University / Master's Degree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and coping strategies of parents who have been alienated by their childre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parents who experienced rejection from their children, and research data were compiled, including observations from support group meetings. The central phenomena reveal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of Strauss and Corbin (1990) were “anticipatory grief of eternal separation” and “meaninglessness of life without children.” As participants perceived their experiences of rejection from their children as “parental alienation,” they found legitimacy in restoring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The key strategies to cope with an ineffective visitation system and parental alienation included “legal responses,” “awakening to parenthood,” and “mutual support and solidarity among victims.” Parental alienation, a phenomenon combining child ab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significantly impacts various aspects of the lives of these parents. Greater understanding of parental alien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and further research are needed.

Key words : parental alienation,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visit access, child abuse, intimate partner violence, grounded theory